

자기개념 명확성이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체 비교 및 신체 불만족의 이중매개 효과[†]

조 경 희

이 봉 건[‡]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신체 비교, 신체 불만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이 신체 비교와 신체 불만족의 이중 매개를 통해 이상 섭식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전국에 있는 10~20대 여성 총 3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업체인 인바이트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측정도구로는 자기개념 명확성(SCCS), 이상 섭식 행동(KEAT-26), 신체 비교(PACS+SACS), 신체 불만족(BSQ)척도가 사용되었다. 분석 방법은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방식인 2단계 접근법(Two step approach)에 따라 측정 모형을 검증 후 구조모형을 검증하였고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만들어 χ^2 검증을 통해 차이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념 명확성과 이상 섭식 행동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절차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과 신체 비교 및 신체 불만족, 이상 섭식 행동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기개념 명확성과 이상 섭식 행동간에 신체 비교와 신체 불만족의 순차적 이중 매개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자기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타인과의 신체 비교행동을 줄일 수 있고 감소된 신체 비교행동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도를 낮춤으로써 이상 섭식 행동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연구 의의와 제안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자기개념 명확성, 이상 섭식 행동, 신체 비교, 신체 불만족, 섭식 장애

[†] 본 논문은 조경희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봉건, (362-763)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Tel: 043-261-2188. E-mail: clinpsy@chol.com

최근 미에 대한 서구적 가치관이 유입되고 날씬한 몸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마른 체형을 가지기 위해 체중조절을 시도한다. 국내에서 실시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전체 43% 여학생이 한 달 동안 체중감소를 시도하였고 1/4 이상이 하제 및 이노제를 사용하거나 다이어트 약을 먹는 등 부적절한 체중 감소 행위를 보였다. 또한 정상 체중임에도 자신이 살이 쪼다고 느끼며 다이어트를 시도한 집단이 전체 28%에 해당하였는데 이를 볼 때 비만한 사람뿐 아니라 정상 체중 집단에서도 마른 체형을 가지기 위해 체중조절을 시도한다. 가장 흔한 체중조절 방법은 섭식 절제이지만 음식은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오히려 갈망이 증가되어 이상 섭식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Ricciardelli, Tate, & Williams, 1997; Stice, 1994). 이상 섭식 행동이란 거식 및 폭식 행동과 음식을 조금씩 쪼개 먹는 섭식 통제 행동, 섭취 후 하제나 이노제를 사용하거나 구토를 통해 음식을 뱉어내는 부적절한 보상행동들을 포함한다(Garfinkel, 1982). Mintz, O'Halloran, Mulholland, Schneider(1997)은 이상 섭식 행동이 정상행동과 섭식 장애 사이의 연속선상에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상 섭식 행동이 많을수록 섭식장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섭식장애는 크게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으로 구성되는데,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란 체중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아 유의하게 낮은 체중(BMI ≤ 17)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체중과 체형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속적인 체중 감소는 월경의 중단과 골밀도의 저하를 일으키며 저혈압, 전해질의 이상, 무기력증 등 신체 증상과 함

께 심한 경우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WHO에서는 이 병을 국가에서 최우선으로 두고 치료해야 할 청소년 질환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다(김율리, 2012). 신경성 폭식증은 빠른 시간 내 과도하게 많은 양을 섭취하는 폭식 삽화와 섭취 후 부적절한 보상행동이 존재하며 체중과 체형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다. 2014년에 개정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5)에서는 섭식장애로 군에 폭식장애를 추가하였는데 반복적인 폭식삽화가 있다는 점에서 신경성 폭식증과 유사하지만 부적절한 보상행동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섭식장애 환자의 수가 2006년 대비 2010년에 약 30%이상 증가하였으며 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섭식장애로 진단되는 등 그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섭식장애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단일 요인이 원인이 되기보다는 생물학적, 심리적, 가족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이상 섭식 행동을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신체 불만족과 신체 비교가 있다(Ricciardelli, Tate, & Williams, 1997; Shroff & Thompson, 2006).

신체 불만족이란 자신의 신체 사이즈와 체형, 무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이 지각하는 신체와 현재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신체와의 차이로도 정의내릴 수 있다(Cash, 2012). 사회가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마른 체형을 강조하면 할수록 여성들은 자신의 체형과 마른 체형과 비교하여 신체에 불만족을 느끼고 체중조절을 시도하게 된다(Stice, 2001). 신체 불만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다이어트와 폭식 삽화(Van

den Berg, Wertheim, Thompson, & Paxton, 2001)가 증가했으며 음식 섭취 후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구토를 하거나 이뇨제를 사용하는 부적절한 보상 행동도 나타났다(Ackard, Cronemeyer, Franzen, Richter, & Norstrom, 2011). 이렇듯 높은 신체 불만족은 섭식 절제와 폭식 행동을 유발하여 섭식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Ricciardelli, Tate, & Williams, 1997).

Festinger(1954)의 사회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려는 동기를 가지는데 비교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향상시키려고 한다. 비교행동은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기준이 모호할 경우에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평가한다(Thompson, Heinberg, Altabe, & Tantleff-Dunn, 1999). 사회비교 이론에서 나온 '신체 비교'는 개인이 자신의 체형이나 체중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Stormer & Thompson, 1996). 신체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시대와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인과의 비교 행동을 통해 자신의 체형을 평가하게 된다(홍종필, 이시연, 2005).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은 그들의 신체가 문화적인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주변의 동료들과 자신의 신체사이즈를 비교하는 경향이 높았다(Lindner, Hughes, & Fahy, 2008). 비교 행동은 크게 상향 비교(upward comparison)와 하향 비교(downward comparison)로 나누어지는데 상향 비교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하향 비교는 자신보다 뚱뚱한 사람과 비교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Leahey 등(2007)의 연구에 의하면 80%의 여성들이 하향 비교 보다는 TV속 연예인이나 모델 혹

은 자신 보다 나은 동료를 통한 상향 비교 행동이 더 많았다. Mills 등(2002)은 여성들이 상향 비교를 많이 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 보다 좀 더 마르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Gilbert와 Meyer(2003)의 연구에 따르면 상향 비교 행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고 다이어트 욕구와 폭식 행동이 높은 관련이 있었다. Richins(1991)은 여성들에게 다른 모델이 나오는 광고를 보여 주며 신체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광고 후에 자신의 신체를 모델과 자주 비교하고 자신의 신체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부정적인 자기평가가 나타났다. 마른 또래와 빈번하게 신체를 비교하는 것도 자신의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걱정과 함께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켰다(Wertheim, Paxton, Schutz, & muir, 1997). 이처럼 자신과 타인의 체형을 비교하는 것은 신체 불만족과 함께 높은 이상 섭식 행동과도 관련이 있었다(Bamford & Halliwell, 2009; Corning & Smitham, 2006; 손은정, 2008).

섭식 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측면에는 자기개념을 들 수 있는데 자기개념이란 '자신에 대한 믿음, 평가, 기억을 포함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역동적이며 조직화된 지식 구조'(Campbell et al., 1996)로 정의된다. Bruch(1973)는 통제감이 높고 지배적인 부모로부터 길러진 아동일수록 독립적인 정체감과 분명한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데 곤란을 겪는다고 하였다(Stein, 1996). 초기 자기 개념은 안정되고 통합된 단일 개념으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 연구되어 왔다(Swann, Chang-Schneider, & McClarty, 2007). 그러나 자기개념의 명확성과 안정성, 그리고 조직성(organization)을 고려해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에는 자기개념을 구조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Campbell, 1990). 내용적 측면에는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지식적인 부분과 평가적인 부분으로 나뉜다. 지식적인 측면은 자신의 목표, 가치, 특징 등으로 기술되며 평가적 부분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판단으로 대표적으로 자아 존중감이 있다(Campbell 1996). 구조적인 측면에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포함되는데 '자기개념의 내용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정의되어있고, 시간에 따라 안정적이고 일관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Campbell et al., 1996). 즉, 자기개념이 실제 자기와 얼마나 일치한가와는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가 인식하기에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가, 시간이 흘러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지속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강선영, 홍혜영, 2012). 최근 구조적 차원이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로 밝혀짐에 따라 연구의 초점이 되기 시작했다(Neimeyer & Brown, 2001). 자기개념이 명확한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한 일관된 내적 기준과 개념이 형성되어 있으며 외부의 기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정체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자신에 대한 상충되고 혼란스러운 정보가 많으며, 자신을 정의하는데 외적 단서를 추구하고 의존하게 된다(Campbell & Fehr, 1990; Vartarian & Dey 2013).

사회비교 이론을 주장한 Festinger(1954)도 정체성이 불확실 할수록 그들이 사회에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강하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정체성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사람일수록 타인과 비교하려는 욕구가 높을 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Butzer & Kuiper,

2006). 실제 연구에 따르면 Corning과 Smitham(2006)는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타인과의 비교행동이 높았으며 자기개념 명확성은 이상 섭식 행동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섭식장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자기개념의 평가적 측면인 자아존중감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Jordan & Cole, 1996). 섭식장애 환자의 정체성이 불안정하고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기개념 명확성과 섭식 장애간의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기개념이 불명확할수록 타인과의 비교행동이 증가하고 증가된 비교 행동은 높은 신체 불만족을 유발하며 이상 섭식 행동과도 관련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개념의 구조적 측면인 자기개념 명확성과 이상 섭식 행동 및 그 심리적 기제들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을수록 신체 비교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을수록 이상 섭식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신체 비교가 증가할수록 신체 불만족 및 이상 섭식 행동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4. 자기개념 명확성은 신체 비교와 신체 불만족을 이중 매개 하여 이상 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 법

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장훈장학회 후원을 받아 설문 업체인 인바이트(www.invight.co.kr)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수집되었다. 대상자는 전국에 거주하는 10~20대 여성 400명이었으며 결측치를 제외한 총 386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20.27세였고, 체중 평균은 약 55.29kg (SD=9.4), 신장은 평균 160.94cm(SD=5.27) 이었다. 신체 질량 지수(BMI)를 확인해 본 결과 저체중 집단(BMI 18.5미만)이 약 17.9%였으며, 정상체중 집단(BMI 18.5~23)은 약 57.7%, 과체중집단(BMI 23~ 25)는 약 12.5%, 비만 집단(BMI 25이상)이 약 12%였다. 평균 신체 질량 지수는 21.3(SD=3.3)로 나타났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N=386)

구분	평균(표준편차)
연령(만)	20.27
키(cm)	160.94cm(5.27)
몸무게(kg)	55.29kg(9.4)
신체 질량 지수(BMI)	21.3(3.3)

도구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SCCS). Campbell (1996)이 만든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ale; SCCS)를 김대익(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문항들은 "나는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이 매우 자주 바뀌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있다" 등으로 구성된다. 총 5점 척도로 측정되며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이 명확함을 시사한다. Campbell(1996)등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4로 나타났다.

신체 비교 척도(PACS+SACS). 신체에 대한 사회적 비교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Thompson, Heinberg 및 Tantleff(1991)의 신체 비교 척도(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Scale; PACS)를 박정수(200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4문항으로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된다. 문항의 예로 "나는 파티나 다른 사교 모임에서 나의 신체적 외모와 다른 사람의 신체적 외모를 비교한다." "나는 종종 사람들을 만날 때 나의 몸매를 다른 사람의 몸매와 비교한다."등으로 구성되었다. Thompson 등(1991)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가 .7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8로 나타났다.

또한 Tiggemann과 McGill(2004)가 개발하고 손은정(2008)이 번안한 구체적인 신체 특성 비교 척도(Specific Attributes Comparison Scale; SACS)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신체 특성 비교 척도는 팔뚝, 허벅지등 구체적인 신체 부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정도를 측정하는데, 문항은 총 5개의 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된다. 문항의 예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허벅지와 타인의 허벅지를 비교한다.", "다른 사람의 엉덩이

크기와 내 엉덩이 크기를 비교한다.”등이며 두 척도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과의 비교행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Tiggemann과 McGill(2004)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내적 합치도는 .81로 나타났다.

신체 불만족 척도(BSQ). 신체 불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Cooper, Taylor, Cooper와 Fairburn(1987)이 체형에 대한 관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만든 체형 만족도 평가지(Body Shape Questionnaire: BSQ)를 노영경과 김봉환(2005)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BSQ는 비만한 느낌과 현재 체중의 왜곡에 기인한 부정적 정동을 나타내는 질문들로 구성 되어있다. 문항은 총 32 문항이며 6점 척도이다. 척도의 문항으로는 “따분할 때 자신의 체형에 대해 골똥히 생각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체형을 보면 자신의 체형에 대해 비판적으로 느껴집니까?”, “자신의 몸매를 부끄럽게 느끼니까?”등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시사한다.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8로 나타났으며 노영경(2005)의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6으로 나타났다.

이상 섭식 행동 척도(KEAT-26). 이상 섭식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Garfinkel(1982)등이 개발한 Eating Attitude Test(EAT)를 이민규(1998)가 번안하여 만든 한국판 섭식태도 검사(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섭식장애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 집단의 이상 섭식 태도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자기 보고식 척도이며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은 거식요인 13문항과 폭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를 나타내는 6문항 섭식통제 행동 7문항을 포함한다. 문항은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항상 그렇다)로 매우 그렇다는 3점, 그렇다는 2점, 약간 그렇다 부터 전혀 아니다 까지는 0점으로 적용하여 사용된다. 총점이 높을수록 이상 섭식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며 총점이 20점이 넘을 경우 병리적인 절식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되며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시사한다. 문항의 예로써 “음식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먹는다”, “억제할 수 없이 폭식을 한 적이 있다”, “내 삶이 음식에 의해 좌우된다는 생각이 든다” 등이 있다. 이민규 등(199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0였다.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각각의 변인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한 Cronbach's α 을 확인하였다. 이민규(1998)의 선행 연구에 따라 이상 섭식 행동은 3요인으로, 자기개념 명확성, 신체 비교, 신체 불만족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문항꾸러미(item parcelling)를 나누어 하위 변인간의 상관을 확인하였다. 그 후 자기개념 명확성과 이상 섭식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찾기 위해 AMOS 21.0을 사용하여 Anderson과 Gerbing (1988)이 제안한 방식인 2단계 접근법(Two step approach)에 따라 측정 모형 검증 후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선행 연구를 고려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내재하는(nested model) 모형인 대안모형을 만들어 χ^2 검증을 통해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적합도는 상대

적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면 좋은 것이며 RMSEA의 경우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 이상이면 나쁜 모형으로 해석한다(홍세희, 2001). 마지막으로 자기개념 명확성과 이상 섭식 행동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의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절차를 사용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간 기술 통계 및 상관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모든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는데 자기개념 명확성은 신체 비교, 신체 불만족, 이상 섭식 행동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졌다. 그 중 자기개념 명확성은 신체 비교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이상 섭식 행동은 신체 불만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하위 측정 변인간의 상관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개별 문항을 모두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문항 꾸러미(item parcelling)를 만들어서 자료를 분석할 때 자료가 정규분포를 위반할 가능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적합도가 상승하기에(Bandalos,

2002), 문항꾸러미를 만들어 구조방정식 검증을 실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상 섭식 행동은 3요인, 자기개념 명확성은 2요인으로 나누었으며 신체 비교와 신체 불만족은 단일 요인으로 간주되기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해 각각 2요인과 3요인으로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을 잘 측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 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적합도가 기준치를 충족시켰음으로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chi^2(df=23, N=386)=75.558, p=.001$; TLI=.957, CFI=.978, RMSEA=.077(90%신뢰구간). 표 4를 보면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들 간의 경로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요인 부하량은 자기개념 명확성은 .768-.857, 신체 비교는 .782-.914, 신체 불만족 .785-.906, 이상 섭식 행동은 .520-.864 으로 모두 $p<.001$ 수준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모형과 대안 모형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앞서 하나 이상의 모형이 경험적인 자료에 적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 모형과 대안모형을 만들어서 비교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은 앞서 제시한 가설들을 고려하면서 대안모형을 모두 내포(nested)할 수 있는 모형인 자기개념 명확성이 신체 비교와 신체 불만족을 각각 및 순차적으로 이중 매개하고 이상 섭식 행동에 영향을 주며 자기개념 명확성이 이상 섭식 행동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부분 이중 매개 모형을 가정하였다. 대안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2. 각 측정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N=386)

	1	2	3	4
1. 자기개념 명확성				
2. 신체 비교	-.517**			
3. 신체 불만족	-.463**	.720**		
4. 이상 섭식 행동	-.387**	.539**	.679**	

* $p < .05$, ** $p < .01$, *** $p < .001$

표 3. 하위 측정 변인간 상관계수 (N=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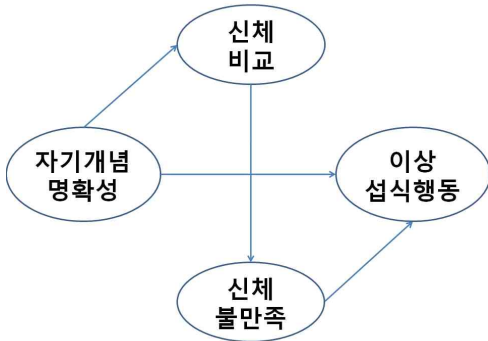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	.659**									
3	-.456**	-.435**								
4	-.454**	-.407**	.715**							
5	-.385**	-.321**	.523**	.696**						
6	-.419**	-.405**	.542**	.697**	.796**					
7	-.482**	-.380**	.564**	.538**	.694**	.702**				
8	-.327**	-.278**	.487**	.546**	.749**	.662**	.654**			
9	-.151**	-.142**	.210**	.079	.098	.078	.214**	.307**		
10	-.411**	-.291**	.403**	.359**	.448**	.436**	.596**	.501**	.276**	

자기개념 명확성 1, 2, 신체비교 3, 4, 신체불만족 5, 6, 7 이상섭식행동-절식 8, 이상섭식행동-섭식통제 9, 이상섭식행동-폭식 1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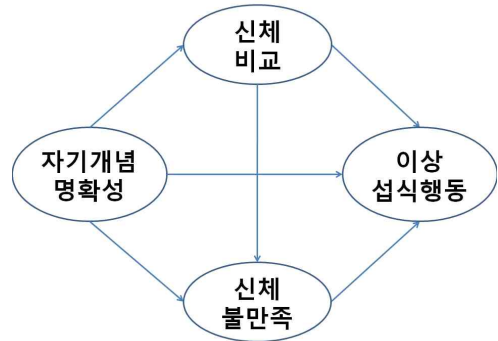
표 4. 측정모형의 요인계수와 임계치(N=386)

	B	β	S.E	t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개념 명확성1	1	.857		
자기개념 명확성2	.910	.768	.081	11.233***
신체 비교				
신체 비교1	1	.782		
신체 비교2	1.636	.914	.094	17.468***
신체 불만족				
신체 불만족1	1	.906		
신체 불만족2	1.088	.875	.044	24.878***
신체 불만족3	.267	.785	.013	20.112***
이상 섭식 행동				
절식행동1	1	.864		
섭식통제행동2	.491	.520	.048	10.279***
폭식행동3	.975	.658	.072	13.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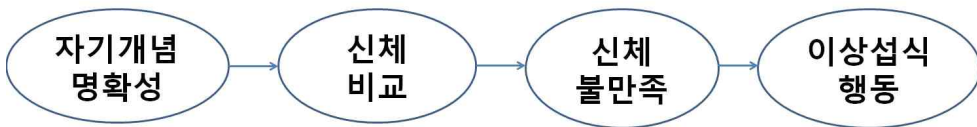
$p < .05$, ** $p < .01$, *** $p < .001$



대안모형 1. 자기개념 명확성이 이상 섭식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신체 비교와 신체 불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



연구모형. 부분이중매개 모형



대안모형 2. 자기개념 명확성이 신체 비교와 신체 불만족의 순차적 매개만을 통해 이상 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모형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1, 2 모두 RMSEA가 .10 이하(90%의 신뢰구간)로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내며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 중 설명력이 높고 간결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χ^2 차이 검증을 이용하여 모형들을 비교해 보았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들 간의 차이검증 결과, 대안모형 1은 $\Delta\chi^2=1.958(\Delta df=2)$, 대안모형 2는 $\Delta\chi^2=2.008(\Delta df=3)$ 로 연구모형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두 모형간 χ^2 의 차이가 유의하면 자유도가 작은 모형을 선택하며 두 모형간의 χ^2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으면 모형간 합치도 차이가 없는

것임으로 자유도가 더 큰 모형, 즉 더 간명한 모형을 선택한다(홍세희, 2001). 따라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비교했을 때 대안모형 2가 자료를 더욱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기에 최종모형으로 선택되었다.

최종 모형의 모수추정치를 보면 자기개념 명확성은 신체 비교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beta=-.617, p<.001$), 신체 비교는 신체불만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며($\beta=.846, p<.001$), 신체 불만족은 이상 섭식 행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했다($\beta=.896, p<.001$). 자기개념 명확성과 이상 섭식 행동의 매개 효과를 보면 변수들의 전체 효과는 .46에서 .89까지 모

표 5. 연구모형과 대안모형간의 적합도 지수(N=386)

	χ^2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87.943***	23	.947	.973	.086
대안모형1	89.901***	25	.951	.973	.082
대안모형2	89.951***	26	.954	.973	.080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최종 모형의 모수추정치(N=386)

경로	B	β	S.E	t
자기개념 명확성 →신체 비교	-.523	-.617	.056	-9.281***
신체 비교 →신체 불만족	3.675	.846	.243	15.099***
신체 불만족 →이상 섭식 행동	.227	.896	.010	21.689***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주요 변인간의 직, 간접 및 총 효과(N=386)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자기개념 명확성 →신체 비교	-.617***		-.617***
자기개념 명확성 →신체 불만족		-.522***(-.600~- .433)	-.522***
자기개념 명확성 →이상 섭식 행동		-.467***(-.549~- .380)	-.467***
신체 비교 →신체 불만족	.846***		.846***
신체 비교 →이상 섭식 행동		.758***(.690~.814)	.758***
신체 불만족 →이상 섭식 행동	.896***		.896***

* $p < .05$, ** $p < .01$, *** $p < .001$

든 변인이 이상 섭식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기개념 명확성이 신체 비교를 거쳐 신체 불만족으로 가는 경로($\beta = -.522$, $p < .001$)와 신체 비교가 신체 불만족을 거쳐 이상 섭식 행동으로 가는 경로($\beta = .758$, $p < .001$) 모두 95%의 신뢰 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했다.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이 신체 비교와 신체 불만족을 거쳐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67$, $p < .001$).

논 의

본 논문은 전국에 거주하는 10대~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념 명확성과 이상 섭식 행동 간의 관계를 신체 비교와 신체 불만족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개념 명확성과 신체 비교, 신체 불만족 및 이상 섭식 행동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그 중 이상 섭식 행동과 신체 불만족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이상 섭식 행동

의 위협 요인으로 신체 불만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김영신, 양난미 2010; 손은정, 2008; Polivy & Herman, 2002).

둘째,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신체 비교 행동이 증가하고 신체 불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자기개념 명확성과 신체 불만족을 신체 비교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으로 인해 증가한 신체 비교행동은 높은 이상 섭식 행동과도 관련이 있었고 신체 비교는 신체 불만족을 매개해서 이상 섭식 행동을 증가시켰다. 자기개념이 명확하다는 것은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형성되어 있으며 자기 이해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Campbell, 1990). 반면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개념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외모나 신체상과 같은 외적인 요소에 더욱 취약해 지기 쉽다(Campbell, 1990; Schupak-Neuberg & Nemeroff, 1992). 불안정한 내적 상태를 벗어나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형성하고자하는 동기으로써 비교행동이 증가하는데 현대사회가 연예인이나 모델을 통해 지나치게 마른 몸이 이상적인 체형이라는 것을 강조할수록(Leahey, Crowther, & Mickelson, 2007; Thompson et al., 1999) 마른 사람과의 비교 행동이 증가 되어 자신의 체형에 대한 단점을 인식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된다(Vartanian, 2013).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이상적인 체형에 도달하고자 무리하게 음식 섭취를 줄이거나 폭식 후 부적절한 보상행동을 하는 등 섭식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김영신, 양난미, 2010; 손은정, 2008; Cattarin, Thompson, Thomas, & Williams, 2000; Durkin & Paxton,

2002; Fisher, Dunn, & Thompson, 2002).

셋째, 변인간의 관련성을 모두 포함한 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기개념 명확성과 이상 섭식 행동간에 신체 비교 및 신체 불만족의 완전 매개가 수집된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병리적인 섭식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보다는 자신의 체형을 비교한 후 신체 불만족도가 높아져 이상 섭식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의 BMI가 평균적으로 21.3으로 정상체중에 해당함에도 전체의 44%가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고 체중 감량 행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연구에서 사용한 이상 섭식 행동 척도의 경우 20점 이상을 병리적인 질식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전체 참여자의 약 10%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가능성이 시사됐다. 비만인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섭식장애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치료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섭식장애와 관련된 자기개념 연구는 자아 존중감을 토대로 연구되어 왔다(Corning, Krumm, & Smithan, 2006; 손은정, 2008; 김영신, 양난미, 2010). 그러나 최근 들어 자기개념이 단일한 측면이 아니라는 주장(Kernis, Cornell, Sun, Berry, & Harlow, 1993; McConnell, 2011)에 따라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자기개념과 섭식 장애에 관한 연구를 확장시킬 뿐 아니라 그 심리적 기제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신체 비교행동은 이상 섭식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기에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그 방안으로 자기개념 명확성을 언급함으로써 새로운 개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청소년기~초기 성인기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고 잦은 변화와 혼란을 경험하며(Kroger, Martinussen, & Marcia, 2010) 타인과의 비교 행동 및 섭식장애의 비율이 높다(Clay, Vignoles, & Dittmar, 2005). 뿐만 아니라 신경성 폭식증을 가진 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서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것(Schupak-Neuberg & Nemeroff, 1992)을 고려해 볼 때 치료개입에 있어 외모나 신체상에 기초하지 않는 일관되고 분명한 자기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자기개념 명확성이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적응 그리고 정신건강과도 관련된다는 것(Campbell, 2003; 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이수현, 2005)을 고려할 때, 자기개념을 명확히 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 10~20대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 섭식장애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경험들을 토대로 남녀 모두를 포함해 성별에 따른 차이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최근 30대 섭식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연령대를 확장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여학생들의 비교 행동을 할 때 하향 비교 보다는 상향 비교를 많이 한다는 기존 선행논문을 토대로 가정하고 비교행동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비교행동을 상

향비교와 하향비교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자기개념 명확성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자신보다 마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신체 만족도가 낮아진다면 자신보다 뚱뚱한 사람과 비교하는 집단에서 신체 만족도가 높아지는지 혹은 상향 및 하향 비교를 모두 포함하는 비교 행동 자체가 신체 불만족을 높이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섭식장애 환자들의 자기평가에서 체중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자기개념의 구조적 요소 중 하나인 자기복잡성과 섭식 장애와의 관련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 같은 평가적인 측면을 모두 아울러 통합적인 모형 검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선영, 홍혜영 (2012). 직장인의 자기에와 공격성의 관계. *통합치료연구*, 4(1), 25-5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5, 23). "살찌는 것이 두렵다", 20대 섭식장애 여성 남성의 9배 <http://www.hira.or.kr>.
- 김대익 (1998). 한국인의 자아개념 명료성에 대한 연구: 성격, 자의식, 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소희 (2013, 5, 20). 여학생 10명 중 3~4명은 표층체 중에도 "나 뚱뚱해" 메디컬 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24277>.
- 김영신, 양난미 (2010). 남녀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섭식억제간의 관계에서 신체 비교와 신체 불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9(4), 791-815.
- 김율리 (2012). 섭식장애와 청소년 건강. *대한소아소화*

- 기영양학회지, 15(1), 1-6.
- 노영경, 김봉환 (2005). 체형 만족도 평가지의 타당화 연구-여대생을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6(4), 1163-1174.
- 민성길 외 (2015). 최신정신의학 제6판 서울: 일조각.
- 박정수, 이민규, 신희천 (2007). 여대생의 절식 및 폭식 행동에 대한 자기-평가의 신체중요성 지각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6(1), 73-91.
- 손은정 (2008).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신체 비교, 마른 이상적인 체형의 내면화, 신체불만족이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0(3), 885-901.
- 이민규, 이영호, 백세현, 손창현, 정영조, 홍성국, 장필립, 윤애리 (1998). 한국판 식사 태도 검사 표준화 연구 : 신뢰도 및 요인분석, *정신신체의학*, 6(2), 155-175.
- 이상선, 오경자 (2004). 몸매와 체중에 근거한 자기 평가와 신체 불만족이 여대생의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3(1), 91-106.
- 이수현 (2005). 자기 복잡성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종필, 이시연 (2005). 잡지 속의 신체 이미지 광고에 대한 노출이 20대 여성의 기분과 신체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 상향 비교, 마른 몸매에 대한 사회규범화, 그리고 외모 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19(4), 72-118.
- 홍세희 (2001).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1), 161-179.
- Ackard, D. M., Cronemeyer, C. L., Franzen, L. M., Richter, S. A., & Norstrom, J. (2011). Number of different purging behaviours used among women with eating disorders: Psychological, behavioural,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Eating Disorders*, 19(2), 156 - 174.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Bailey, S. D., & Ricciardelli, L. A. (2010). Social comparisons, appearance related comments, contingent self-esteem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body dissatisfaction and eating disturbance among women. *Eating Behaviors*, 11(2), 107-112.
- Bamford, B., & Halliwell, E. (2009). Investigating the role of attachment in social comparison theories of eating disorders within a non-clinical female population.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7, 371-379.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1), 78 - 102.
- Bruch, H. (1973). *Eating disorder: Obesity, anorexia nervosa, and the person within*. New York: Basic Books.
- Butzer, B., & Kuiper, N. A. (2006). Relationships between the frequency of social comparisons and self-concept clarity,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xiety,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167-176.
- Campbell, J. D., Assanand, S., & Paula, A. D. (2003). The structure of the self-concept and its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1), 115-140.
- Campbell, J. D., & Fehr, B. (1990). Self-esteem and perceptions of conveyed impressions: Is negative affectivity associated with greater real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22-133.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41-156.
- Cash, T. F. (2012). Cognitive-behavioural perspectives

- on body image. In T. F. Cash (Ed.), *Encyclopedia of body image and human appearance*. London, UK and San Diego, CA: Academic Press (Elsevier).
- Cattarin, J. A., Thompson, J. K., Thomas, C., & Williams, R. (2000). Body image, mood and televised images of attractiveness: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220-239.
- Clay, Vignoles, & Dittmar. (2005). Body image and self-esteem among adolescent girls: Testing the influence of sociocultural factor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 451 - 477.
- Cooper, P. J., Taylor, M. J., Cooper, Z., & Fairburn, C. G. (1987).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ody shap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6*(4), 485-494.
- Comins, A. F., Krumm, A. J., & Smitham, L. A. (2006). Differential social comparison processes in women with and without eating disorder symptom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338-349.
- Durkin, S. J., & Paxton, S. J. (2002). Predictors of vulnerability to reduced body imag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response to exposure to idealized female media images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3*, 995-1005.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Fisher, E., Dunn, M., & Thompson, J. K. (2002). Social comparison and body image :An investigation of body comparison processes using multidimensional scal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1*, 566-579.
- Gilbert, N., & Meyer, C. (2003). Social anxiety and social comparison. Differential links with restrictive and bulimic attitudes among nonclinical women. *Eating Behaviors, 4*, 257 - .264.
- Jordan, A., & Cole, D. A. (1996). Relation of depressive symptoms to the structure of self-knowledge in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4), 530-540.
- Kernis, Michael H., Cornell, David P., Sun, Chien-Ru., Berry, Andrea, Harlow., & Thomas (1993). There's more to self-esteem than whether it is high or low: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6), 1190-1204.
- Kroger, Martinussen, & Marcia. (2010). Identity status change during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A meta-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33*, 683 - 698.
- Leahey, T. M., Crowther, J. H. & Mickelson, K.D. (2007). The frequency, nature, and effects of naturally occurring appearance-focused social comparisons. *Behavior Therapy, 38*, 132-143.
- Lindner, D., Hughes, A., & Fahy, R. (2008). Eating Pathology and social comparison in college females.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0*, 445-462.
- McConnell, A. R. (2011). The multiple self-aspects framework: Self-concept representation and its impl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5*, 3-27.
- Mills, J. S., Polivy, J., Herman, C. P., & Tiggemann, M. (2002). Effects of exposure to thin media images: Evidence of self-enhancement among restrained eat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687-1699.
- Mintz, L. B., O'Halloran, M. S., Mulholland, A. M., & Schneider P. A. (1997). Questionnaire for eating disorder diagnose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operationalizing DSM-4 criteria into a self-report forma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1), 63-79.

- Myers, T. A., & Crowther, J. H. (2009). Social comparison as a predictor of body dissatisfaction: A meta-analytical review.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4), 683-698.
- Ricciardelli, K. A., Tate, D., & Williams, R. J. (1997). Body dissatisfaction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etary restraint and bulimic eating patterns. *Appetite, 29*, 43-54.
- Richins, M. L. (1991). Social comparison and the idealized image of adverti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8*, 71-83.
- Schupak-Neuberg, E., & Nemeroff, C. J. (1992). Disturbances in identity and self-regulation in bulimia nervosa: Implications for a metaphorical perspective of "body as self".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3*(4), 335-347.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 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tein, K. F. (1996). The schema model: A theoretical approach to the self concept in eating disorder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 96-109.
- Stice, E. (2001). A prospective test of the Dual-Pathway Model of Bulimic Pathology: mediating effects of dieting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Social and Abnormal Psychology, 110*(1), 124-135.
- Stormer, S. M., & Thompson, J. K. (1996). Explanations of body image disturbance: A test of maturational status, negative verbal commentary, social comparison, and sociocultural hypothes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9*, 193-202.
- Swann, W. B., Chang-Schneider, C., & McClarty, K. L. (2007). Do our self-views matter? Self-concept and self-esteem in everyday life. *American Psychologist, 62*, 84-94.
- Thompson, J. K., Heinberg, L. J., Altabe, M., & Tantleff-Dunn, S. (1999). *Exacting beauty: theory, assesment, and treatment of body image disturba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hompson, J. K., Heinberg, L. J., & Tantleff, S. (1991). The 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Scale (PACS). *The Behavior Therapist, 14*, 174.
- Tiggemann, M., & McGill, B. (2004).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in the effect of magazine advertisements on women's mood and body dis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1), 23-44.
- Vartanian, L. R., Dey, S. (2013). Self-concept clarity,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appearance-related social comparison as predictors of body dissatisfaction. *Body image, 10*, 495-500.
- Van den Berg, P., Wertheim, E. H., Thompson, J. K., & Paxton, S. J. (2002). Development of body image, eating disturbance, and general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adolescent females: a replication using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in an Australian sampl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2*(1), 46-51.
- Wertheim, E. H., Paxton, S. J., Schutz, H. K., & muir, S. L. (1997). Why do adolescent girls watch their weight? An interview study examining sociocultural pressures to be thi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2*(4), 345-355.

원고접수일: 2015년 3월 5일

논문심사일: 2015년 4월 2일

게재결정일: 2015년 4월 23일

The Influence of Self-Concept Clarity on Disordered Eating Behaviors : The Mediating Effects of Physical Comparison and Body Dissatisfaction.

Kyung-Hee Cho Bong-K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elf-concept clarity, physical comparison, and body dissatisfaction on disordered eating behaviors. The participants were 386 females aged 10 to 29 years, recruited by online survey. They received questionnaires to measure their self-concept clarity(SCCS), physical comparison(PACS+SACS), body shape(BSQ), and disordered eating behaviors(KEAT-26) scale.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researcher constructed one research model and four alternative models to navigate the most suitable explanation for the data, and verified the influence of variable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In order to compare the one research model and four alternative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was used. The SEM revealed that the full dual mediation model fit the data well. The findings suggest that low self-concept clarity might contribute to disordered eating behaviors because it increases women's vulnerability to physical comparison tendencies and body dissatisfac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addressed.

Keywords: self-concept clarity, disordered eating behaviors, physical comparison, body dissatisfaction, eating disorder.